

한국 영자신문에 쓰인 고빈도 동사의 논항가 유형과 사용양상 분석*

고광윤 박성우
(연세대학교)

Goh, Gwang-Yoon and Park, Sung-Woo. 2008. Valency Patterns of High Frequency Verbs in Korean English Newspapers: A Corpus-based Analysis. *Linguistic Research* 25(2), 1-20. The language of English newspapers in Korea, though grammatically almost perfect, shows many different types of “nonnativeness”. This paper is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language of Korean English newspapers, and its main goal is to show how its verbal valency patterns differ from those in the language of American English newspapers and to characterize the differences and/or similarities observed in the comparison. The discussions of this study are mainly based on the analysis of high frequency verbs from the Korean English Newspaper Corpus (built for this study from the three major Korean English newspapers including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and *JoongAng Daily*) and the press categories of the Frown Corpus (Categories A, B, and C). (Yonsei University)

Keywords corpus, corpus linguistics, Korean English newspaper, valency patterns, high frequency verbs, Frown Corpus

1. 머리말

한국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는 적어도 어휘와 문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어민의 영어와 비교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매우 자연스런 영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국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를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미국이나 영국의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와 비교해보면, 취급 주제나 내용에서의 차이를 넘어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차이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와 특징은 무엇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우리의 사회와 문화 및 언어적 토양 속에서 형성된 한국적 영어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영어가 지닌 언어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는 물론 사회문화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특히 나날이 보편화되어 가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적 영어의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하고 그 특

* 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을 설명함으로써 한국적 영어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일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해 발행되는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와 미국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를 실증적인 방식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들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의 모습 가운데 고빈도 동사가 보여주는 논항가 유형(valency patterns)을 코퍼스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논항가 유형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두드러진 차이를 중심으로 두 종류의 신문영어가 보여주는 차이의 이면에 있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 그 분석결과가 한국적 영어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의 신문 언어 연구

국내에서 신문이나 신문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는 주로 언론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그 예들로서 신문의 보도경향을 연구한 이화형(2007), 심재철 외(2003), 취재관행이나 발전방향에 논의한 이재경(2006), 김동규와 김경호(2005), 박진우와 박원준(2005), 그리고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고찰한 서라미와 정재민(2007), 방정배와 최세경(2003) 등이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신문 연구와는 달리 신문의 언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학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두 한국 신문의 사설을 비교 연구한 이원표(2005),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에 나타난 근거성 표현을 분석한 김용진(1999), 신문기사의 언어사용 양상을 고찰한 송경화와 강범모(2006)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신문의 언어학적 연구들은 거의 모두 한국어 신문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어 신문이 아닌 영자신문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언어학적 연구는 그 예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실제 사용되는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언어의 쓰임과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는 코퍼스 언어학적 연구 노력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물론 이론 언어학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즉, 다양한 영어 코퍼스의 구축은 물론, 이를 활용한 많은 유형의 언어 연구가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cf. McCarthy & Sampson 2004, McEnery et al. 2006), 특히 뉴스(news) 장르는 대화(conversation), 소설(fiction), 학술산문(academic prose)과 더불어 영어의 4가지 주요 사용역(register)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f. Biber et al. 1999).

국내에서도 코퍼스 언어학 연구 자체(예: 권혁승 2000, 강범모 2003, 고광운 2005, 박승혁 2005)는 물론,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론과 관련 연구결과를 영어교육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예: 권인숙 2002, 2004, 정호정

2003, 고광운 2006, 2007, 김종복, 안지영 2008). 하지만 이와 같이 활발한 코퍼스 관련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문이나 뉴스 영어의 영어다움을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영국이나 미국의 해당 장르와 비교 분석하여 한국적 영어의 특징을 파악하고 설명을 시도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찾기 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2.2 논항가 유형과 구문패턴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 분석대상인 동사의 논항가(valency, valence)라는 핵심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결합가(結合價)”라고도 불리는 “논항가(論項價)”라는 개념은 본래 화학 등의 자연과학에서 쓰이던 용어로 한 원자가 지닌 화학적 결합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언어학에서는 주로 동사 등의 통사적 요소가 문장 구성상 의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인의 수나 유형을 말한다(cf. Crystal 2003, Biber et al. 1999: 141, Chalker & Weiner 1994: 413).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영어의 동사들은 동사에 따라 혹은 동일한 동사라 할지라도 쓰이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논항가를 지닌다. 이러한 논항가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아래에 주어진 영어의 5가지 구문패턴에 구현되어 있다(cf. (Quirk et al. 1985: 1170, Biber et al. 1999: 380-381, Huddleston & Pullum 2002: 216-218).

(1) 영어 동사의 주요 구문 패턴

- (a) Intransitive (S-V; e.g. *They left early.*)
- (b) Copular (S-V-C; e.g. *John is only a boy.*)
- (c) Monotransitive (S-V-O; e.g. *I have caught a big fish.*)
- (d) Ditransitive (S-V-IO-DO; e.g. *He gave Mary a doll.*)
- (e) Complex transitive (S-V-O-C; e.g. *She called him a hero.*)

영어 동사의 논항가 유형과 그에 따른 구문패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관련 연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통문법적 관점의 Quirk et al.(1985)과 전통문법과 현대언어학의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Huddleston & Pullum(2002: 213-321), 그리고 최초의 코퍼스 기반 종합 영문법 연구인 Biber et al.(1999: 380-392)의 관련 부분을 참조하여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에 쓰인 고빈도 동사들의 논항가 유형과 그에 따른 구문패턴을 분류하고 그 사용양상을 분석하였음을 밝혀 둔다.

3.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코퍼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 영자신문으로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 KH), 코리아타임즈(*The Korea Times*, KT), 중앙데일리(*JoongAng Daily*, JA)를 선정하였다. 코퍼스 구축은 이들 세 영자신문을 대상으로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각 신문에서 매월 1일, 15일, 30일에 발행된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¹⁾ 이러한 방식으로 구축된 한국 영자신문 코퍼스(KENC: Korean English Newspaper Corpus)는 각 영자신문 당 약 21만 단어 규모로서 자세한 내용 구성은 다음의 표에 주어진 것과 같다.

<표 1> 한국 영자신문 코퍼스의 신문별 구성

코퍼스	어휘 수
JA	210,408
KH	208,868
KT	210,382
KENC (JA+KH+KT)	629,658

위와 같이 구축된 한국 영자신문 코퍼스와 비교 분석을 위해 사용한 미국영어 코퍼스는 Frown 코퍼스이다. Frown 코퍼스는 1992년에 사용된 문어체 미국영어를 바탕으로 구축된 코퍼스인데, 약 100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5가지 장르의 텍스트 500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미국영어 코퍼스의 내용 가운데 장르 A, B, C는 모두 신문기사나 사설 등의 뉴스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6만 단어(숫자를 제외하면 약 22만 단어)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본 연구에서 분석할 한국 영자신문과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²⁾

3.2 분석 동사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한국 영자신문 코퍼스와 Frown 코퍼스의 해당 내용을 검색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코퍼스 프로그램은 현재 코퍼스 분석도구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Oxford

1) 경우에 따라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 하루 전이나 후의 기사를 사용하였고 2월의 경우 28일 기사를 사용하였다.

2) Frown 코퍼스의 A, B, C는 모두 신문(press)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각 신문보도(reportage), 사설(editorials), 리뷰(reviews)로 구성이 되어 있다.

WordSmith Tools 4.0이다(cf. Scott 2007). 한편, 직접적인 분석대상이 되는 고빈도 동사의 선정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WordSmith를 사용하여 Frown 코퍼스 A, B, C 텍스트에 쓰인 단어들의 어휘목록(wordlist)을 작성한다. 특히, 어휘목록의 작성에서는 각 동사의 3인칭 단수형과 과거형 등 굴절어미가 붙어 형태가 달라진 단어들을 해당 동사의 원형과 동일한 단어로 분류하기 위해 각 동사의 굴절형에 대해 레마처리(lemmatization)를 한다.

둘째, 위와 같이 산출된 Frown 코퍼스의 어휘목록에서 동사로 쓰이지 않는 모든 단어들을 제외하고 출현빈도 순서로 50개의 고빈도 동사를 뽑아 분석 대상 후보인 고빈도 동사 목록을 만든다.

셋째, 고빈도 동사 목록에 있는 50개의 동사 각각에 대해 WordSmith의 Concordance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예문을 모두 찾아 분석하여 실제 나타난 논항가 유형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50개의 고빈도 동사가 보여주는 논항가 유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쓰인 논항가 유형이 4개 이상으로 밝혀진 12개의 고빈도 동사(즉, *give, call, want, see, need, begin, seem, help, tell, find, try, feel*; 이상 사용빈도순)만을 대상으로 한국 영자신문 코퍼스인 KENC 코퍼스를 검색하여 논항가 유형에 따른 각 동사의 사용양상을 분류한 후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에 쓰인 해당 동사들의 논항가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³⁾

4. 분석결과 및 논의

본 절에서는 위의 소절 3.2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한 12개의 고빈도 동사가 보여주는 논항가 유형에 대해 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서 두드러진 차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1 Give

동사 *give*의 사용 양상은 두 코퍼스에서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목적어 구문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는데,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영자신문에서 *give-IO-DO* 구문이 미국 신문에서보다 더 적게 쓰이는 반면 *give-DO-to-IO* 구문은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⁴⁾

3) 고빈도 동사 50개의 목록은 부록에 주어져 있다.

4) 괄호 밖의 숫자는 사용빈도를, 괄호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낸다.

<표 2> Give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7(1.7)	3(2.0)
S-V-O	88(21.3)	24(16.3)
S-V-IO-DO	189(45.8)	87(59.2)
S-V-DO-to-IO	129(31.2)	33(22.4)
합 계	413(100.0)	147(100.0)

이와 같은 사용비중의 차이는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한국어의 대응구문에서 여격 명사구는 형태상 항상 여격어미(－예/께)를 수반하며 이러한 한국어의 관련 구조는 영어에서 IO가 전치사 *to*를 수반하는 경우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유사점 때문에 한국어 화자들은 *give-DO-to-IO* 구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2 Call

영어 동사 *call*의 구문패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 사이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차이가 눈에 띈다. 다음의 표에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자.

<표 3> Call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5(1.4)	3(2.2)
S-V-O	51(13.9)	26(18.8)
S-V-O-C(NP)	169(45.9)	74(53.6)
S-V-O-C(AP)	11(3.0)	9(6.5)
<i>call for, call on</i>	132(35.9)	26(18.8)
합 계	368(100.0)	138(100.0)

우선, S-V-O 문형은 미국 영자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런 사용 비중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영자신문에서와 달리 한국 영자신문에서는 동사 *call*이 “전화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 영자신문에서 발견된 26번의 S-V-O 문형 가운데 “전화하다”의 의미와 그 외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각각 약 58%와 42%인 반면 한국 영자신문에서는 51번의 S-V-O 문형 가운데 무려 39번(76.5%)이

나 “전화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 4> S-V-O 문형의 의미별 분석: *Call*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전화하다”	39(76.5)	15(57.7)
기타 의미 용법	12(23.5)	11(42.3)
합 계	51(100.0)	26(100.0)

또한, 한국 영자신문에서 *call*이 “전화하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 아래의 <그림 1>에서처럼, 전화번호가 목적어로서 쓰인 경우가 특히 많았다.

<그림 1> *Call*의 Concordance List: KH Corpus

N	Concordance	Set	Tag
1	his guests. Donko began by feverishly calling and sending faxes with invitations	1	
2	She refused to talk to me. I called back the next day, fruitlessly, and	1	
3	extension, listening. Finally I said, "I called to talk to Frank. Would you mind	1	
4	from Feb. 2 to 28. For reservations, call (02) 3430-8630. The Shilla Seoul	2	
5	of October. For more information, call (02)741-0258. Located near Ewha	2	
6	to 8 p.m. For information and orders, call (02) 2237-0848. Novotel Ambassador	2	
7	website at www.daelimmuseum.org or call (02) 720-0667. [EDITORIAL]Lab	2	
8	to 100,000 won.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2204-1041. [EDITORIAL]De	2	
9	Pharmacy Sudo.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736-0088. Daum Globa	2	
10	at the Lounge. For more information, call (02)771-1000. Coffee Shop Patio	2	
11	about the new Ibis brand hotel, call (02) 6391-8001. The home an exiled	2	
12	the dishes available. For reservations, call (02) 310-7345. Lotte Hotel Seoul The	2	
13	free to the public. For more information, call 02-735-1101. Australia launches new	2	
14	person on the other end of the phone. Calling (02) 2118-5400 will put you	2	
15	two guests per table. For reservations, call (02) 531-6477. EVENTS CALENDAR	2	
16	to 100,000 won. For more information, call (02) 1588-1089 or visit	2	
17	and service charge. For reservations, call (02) 317-7131. COEX	2	
18	For inquiries on the education program, call (031) 783-8226. "Yang Ju-hae: a	2	

*Call*의 사용양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 영자신문에서 S-V-O-C (AP) 문형(예: *call the remark regrettable*)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영어의 동사 *call*에 통사 및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 “부르다”가 이와 유사한 문형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⁵⁾

5) 또한, 이 문형의 적은 사용은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필자가 구축한 각각 5종의 중학교 영어교과서와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약 180회 사용된 *call*의 예문 가운데 S-V-O-C(AP) 문형은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3>에 주어진 *call*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에서 한 가지 더 두드러진 차이는,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구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공동사(phrasal verb) *call for*와 *call on*이 한국 영자신문에서 미국 영자신문에서보다 약 2배정도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 (2) (a) He dismissed a recent proposal by the Grand National Party calling for tax reductions. (JA 2006/02/01)
- (b) Opposition parties called for a thorough probe of the golfing scandal. (KH 2006/03/15)
- (c) The Assembly also endorsed a government motion calling for the extension of troop deployment to Iraq for another year. (KT 2006/01/01)
- (3) (a) We call on it to end its street protests and return to the Assembly. (JA 2006/01/02)
- (b) It called on Japan to withdraw the plan. (KH 2006/04/15)
- (c) President Roh Moo-hyun called on Koizumi to consider the South Korean people's sentiment regarding his visits to the shrine. (KT 2006/01/31)

한국 영자신문에서 자주 쓰이는 이들 두 구동사는 대부분 한국의 정치와 외교상황을 다룬 기사나 사설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한국의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는 빠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러 집단 간에 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데,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언론의 대립, 여당과 야당의 대립, 서로 다른 성향의 사회단체와 이익단체 간의 대립 등이 상존하며, 대외적으로도 남북관계, 한일, 한미, 한중 관계 등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많은 주장과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언론의 텍스트에서 *call for*와 *call on*의 높은 사용빈도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3 See

영어동사 *see*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논항가 유형을 지닌다. 두 영자신문 코퍼스에서의 유형별 쓰임을 비교할 때, S-V-O(*wh*-clause)(예: *See how hot the water is*)와 S-V-O-C(AP)(예: *I hate to see you unhappy*)는 미국 영자신문에서, S-V-O-as-C(NP)(예: *It is seen as a key target*)와 S-V-O-C(VP)(예: *We want to see leaders work together in times of crisis*)는 한국 영자신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See*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6(1.3)	5(3.1)
S-V-O	231(50.2)	78(48.8)
S-V-O(<i>that</i> -clause)	19(4.1)	5(3.1)
S-V-O(<i>wh</i> -clause)	28(6.1)	19(11.9)
S-V-O-C(AP)	23(5.0)	8(5.0)
S-V-O- <i>as</i> -C(NP)	59(12.8)	10(6.3)
S-V-O-C(<i>inf.</i>)	56(12.2)	14(8.8)
S-V-O-C(<i>-ing</i>)	38(8.3)	21(13.1)
합 계	460(100.0)	160(100.0) ⁶⁾

동사 *see*의 이러한 사용비중 차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다. 우선, 한국 영자신문에서 두 배 이상 많이 쓰이는 S-V-O-*as*-C(NP) 구문의 경우 한국어에도 이 영어구문과 의미와 통사적인 면에서 거의 동일한 구문(즉, *A*를 *B*로 *보다/간주하다*)가 존재하며, 이러한 한국어 대응구문의 존재가 해당 영어구문의 과도한 사용과 적어도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듯하다.

둘째,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 차이가 크지 않은 S-V-O-C(*inf.*)와 S-V-O-C(*-ing*) 문형의 경우,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영자신문에서는 C의 형태로 현재분사형(*-ing*)보다 상대적으로 더 단순한 동사의 원형부정사형을 유난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a) Visitors can see the formally attired animal stand between
rooster and swine icons. (KT 2006/01/01)

(b) When they see me standing on the nearby corner, I know she's
not alone. (Frown B17: 13)

4.4 *Need*

영어 동사 *need*의 논항가 유형별 사용양상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영자신문에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6) Frown 코퍼스에 쓰인 *see*의 구문패턴별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실제로는 101%가 되는데 이는 각 구문패턴의 백분율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표 6> *Need*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O	184(45.4)	78(69.6)
S-V-O(-ing)	2(0.5)	0(0.0)
S-V-O(to-inf.)	216(53.3)	32(28.6)
S-V-O(bare inf.)	2(0.5)	1(0.9)
S-V-O-C	1(0.2)	1(0.9)
합 계	405(100.0)	112(100.0)

하지만 *need to*의 경우는 한국 영자신문에서 2배 가까이 더 빈번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 영자신문에서의 관련 문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eed to*는 특히 사설(editorials)이나 독자 의견란(opinions)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한국 영자신문(사설)에서 *need to*가 미국 영자신문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need to*의 쓰임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광윤과 이성운(2008)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영자신문의 사설에는 *need to*뿐 아니라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나 준조동사(예: *must, should, have to, ought to, need to* 등)가 전반적으로 미국 영자신문의 사설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어 신문사설의 전형적인 논증구조와 표현방식이 한국 영자신문의 사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화자의 언어사용적 특성이 한국인의 영어사용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는 언어전이현상(language transfer)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⁷⁾

4.5 Tell

동사 *tell*도 *see*처럼 매우 많은 종류의 논항가 유형을 지니고 있어 두 영자신문 코퍼스에서 아주 다양한 구문이 발견된다.

7) 한국 영자신문에 발견되는 *need to* 등의 높은 사용비중은 이미 살펴 본 *call for*와 *call on*의 쓰임과도 관련 지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Tell*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1(0.4)	1(0.8)
S-V-O	17(6.0)	24(20.3)
S-V-O(<i>that</i> -절)	4(1.4)	2(1.7)
S-V-IO	100(35.6)	21(17.8)
S-V-IO-DO	12(4.3)	7(5.9)
tell IO <i>of/about</i>	12(4.3)	8(6.8)
삽입절 ⁸⁾	0(0.0)	5(4.2)
S-V-IO-DO(<i>that</i> -clause)	106(37.7)	33(28.0)
S-V-IO-DO(<i>to</i> -inf.)	20(7.1)	9(7.6)
S-V-IO-DO(<i>wh</i> -clause)	9(3.2)	8(6.8)
합 계	281(100.0)	118(100.0)

위의 표를 살펴보면, *tell*의 논항가 유형별 사용양상은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에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한국 영자신문에서는 S-V-IO(예: *he told reporters*) 구문이 미국 영자신문에서보다 거의 2배 정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구문과 밀접하게 관련된 S-V-IO-DO(*that*-clause) 구문도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⁹⁾ 이러한 언어적 사실은 무엇보다 미국 영자신문과는 달리 한국 영자신문에서는 기사를 작성할 때 인용내용을 전달하는 전달동사를 훨씬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S-V-O 구문은 오히려 미국 영자신문에서보다 훨씬 더 작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문형의 쓰임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영자신문의 (책이나 영화의) 리뷰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tell a story*라는 표현이 한국 영자신문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8) 삽입절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서 대개 S-V-IO-DO(*that*-clause)와 비슷하나 목적어절 내부에 삽입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i) Friday night I'm told was wonderful, but for the rest of us peons, Saturday and Sunday was a zoo. (FROWN B22 226)

9) S-V-IO 구문은 아래의 (i)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O인 *that*-절이 선행하는 구문으로서 사실상 S-V-IO-DO(*that*-clause) 구문과 동일한 구문이라 할 수 있다.

(i) "As the year-end session of the parliament ends today, I am stepping down from the floor leader position," Rep. Kang told reporters. (KH, 2006 / 01 / 01)

- (5) (a) A Vietnam War nurse tells her story. (Frown C02: 76)
(b) Hopkirk tells the story of this massive confrontation between the
19th century superpowers ... (Frown C02: 27)
(c) James Ellroy is deceptively charming-used to performing,
spinning out catchy quotes and off-handedly telling his life story.
(Frown C01: 168)

4.6 *Try*

아래의 표에 주어진 영어동사 *try*의 구문패턴 비교에서 두드러진 점은 S-V-O 구문이 한국
영자신문에서 유난히 많이 쓰인다는 사실이다.¹⁰⁾

<표 8> *Try*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13(4.1)	8(8.0)
S-V-O	37(11.7)	4(4.0)
S-V-O(<i>to-inf.</i>)	260(82.5)	86(86.0)
S-V-O(<i>-ing</i>)	5(1.6)	2(2.0)
합 계	315(100.0)	100(100.0)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문맥을 모두 분석해 본 결과 특정 영자신문의 취급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S-V-O 문형의 빈번한 쓰임은 한국 영자신문의 KENC 코
퍼스를 구성하는 세 영자신문 가운데 특히 *The Korea Herald*에서 관광지나 음식점 정보를
소개하면서 이 구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 (6) (a) If you are in search of something heartier for dinner, try
okonomiyaki (a Japanese-style pizza ...) (KH 2006/04/15)
(b) My daughter and her friends tried the dessert the other night
and thought they would hate it. (KH 2006/04/29)
(c) I would like to address the health benefits of carrots to
encourage you to try out this soup. (KH 2006/04/15)

10) S-V 문형의 쓰임도 차이를 보이나 절대적 빈도가 낮아 무시하기로 한다.

4.7 *Feel*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동사 *feel*도 가능한 논항가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비교적 많은 구문패턴이 발견된다.

<표 9> *Feel*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O	51(27.9)	14(17.1)
S-V-C(AP)	72(39.3)	29(35.4)
S-V-C(PP)	4(2.2)	2(2.4)
S-V-O(<i>how</i> -clause)	3(1.6)	4(4.9)
S-V- <i>like</i>	23(12.6)	3(3.7)
S-V-O(<i>that</i> -clause)	28(15.3)	26(31.7)
S-V-O-C	2(1.1)	2(2.4)
삽입절	0(0.0)	2(2.4)
합 계	183(100.0)	82(100.0)

*Feel*의 쓰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S-V-*like* 문형과 S-V-O(*that*-clause) 문형이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용양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S-V-*like* 문형은 한국 영자신문에서 3배 이상 더 쓰이는 반면, S-V-O(*that*-clause) 문형은 오히려 미국 영자신문에서 2배 가량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쓰임의 차이는 많은 경우 *feel like* 다음에 절 목적어가 후속된다는 점과 한국어에 통사와 의미면에서 영어의 *feel like*와 거의 동일한 대응표현(*처럼 느껴진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 영자신문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은 한국어 화자로서 해당 한국어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치사 *like* 없이 그냥 *that*-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feel like*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한국 영자신문에서 발견된 *feel like*의 예문들은, 아래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 *like*를 생략해도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관련 예문에서 전치사를 생략할 경우 S-V-O(*that*-clause)와 동일한 구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영자신문에서 발견되는 S-V-*like* 문형과 S-V-O(*that*-clause) 문형의 사용비중 차이는 한국어의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7) (a) We also felt like we had to eat fast and leave quick, as there
might be hungry people outside. (JA 2006/03/15)

(b) I feel like we're capable of doing so much but we're so lazy
and ignorant about it. (KH 2006/05/01)

(c) Adjusting to Korean culture, I felt like I needed more knowledge
and expertise. (KT 2006/02/01)

4.8 *Seem*

*Seem*의 사용양상은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에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3개의 유사한 문형인 S-V-NP, S-V-AP, S-V-PP 패턴이 한국 영자신문에서 유난히 적게 쓰이고 있었다. 이는 한국어 화자들이 동사 *seem*의 용법 가운데 주로 *that*-절이나 *to*-부정사가 후속하는 구문에 익숙하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¹¹⁾

<표 10> *Seem*의 논항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NP	7(3.1)	9(7.2)
S-V-AP	55(24.4)	40(32.0)
S-V-PP	5(2.2)	13(10.4)
S-V- <i>that</i> -clause	16(7.1)	5(4.0)
S-V- <i>to</i> -inf.	135(60.0)	55(44.0)
삽입절	7(3.1)	3(2.4)
합 계	225(100.0)	125(100.0)

*Seem*의 사용양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삽입절에 흔히 쓰일 수 있는 다른 동사들(예: *tell*과 *feel*)의 삽입절 용법이 미국 영자신문에서와 달리 한국 영자신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반면 *seem*은 한국 영자신문에서도 그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것이다.¹²⁾ 각 동사마다 삽입절에 쓰이는 경우는 그 절대적 빈도가 높지 않아 일반화하여 말하기에는 좀 성급한 감이 있으나 삽입절에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의 사용에 대한 한국 영자신문 관계자들의 관심과 보완적 사용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1) 이는 또한 한국의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seem*이 NP, AP, 혹은 PP 보어와 함께 오는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2) 동사 *tell*과 *feel*의 삽입절 용법에 대해서는 <표 7>과 <표 9>를 참조할 것.

4.9 *Help, want, begin, find*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어의 고빈도 동사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 본 8개의 동사 외에 4개의 동사가 더 있는데 *help, want, begin, find*가 바로 그것이다.¹³⁾ 이들 동사는 <부록 2>에 주어져 있는 각 동사의 분석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발견되는 해당 구문패턴의 사용비중이 한국과 미국의 영자신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어 화자들이) 영자신문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이들 4개 영어동사의 문형별 사용비중에 관한 한 미국 영자신문에 나타난 원어민의 영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5.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한국 영자신문에 쓰인 고빈도 동사들의 논항가 유형을 미국 영자신문에서의 사용양상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는 분석 대상인 동사들 가운데 한국 영자신문에 사용된 상당수의 동사들이 일부 문법패턴의 사용비중에서 미국 영자신문에서의 쓰임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차이들은 대개 한국어의 특징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에 쓰인 영어는 수준 높은 영어실력을 지닌 기자들에 의해 기사 초고가 작성될 뿐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전문 교정편집인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특히 적어도 어휘 문법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매우 자연스런 영어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사의 초고를 작성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수준 높은 영어실력에도 불구하고 논리의 전개 방식은 물론 영어의 사용 측면에서도 한국어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영자신문에 쓰인 고빈도 동사들이 보여주는 사용양상의 차이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일종의 비모국어성(nonnativeness)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어 사용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는 개인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영어의 국제화(globalization) 흐름 속에서도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얻어가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의 개념이 국가별 혹은 지역별 영어의 다양성과 특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3) 이들 4개 동사의 논항가 유형별 사용양상은 다른 8개의 고빈도 동사에서와는 달리 크게 논의할 만한 사항이 없어 그 분석결과만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14) 단지, *help*의 경우 몇 개의 문형에서 사용비중의 차이를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와 관련된 특별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Help*의 사용양상과 그 차이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듯하다.

한국 영자신문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비모국어성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극복해야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깊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국적 영어의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영자신문 뿐 아니라 학술적 영역, 방송뉴스 영역, 비즈니스 영역 등 한국의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적 영어의 모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 연구 노력이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3.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고광운. 2005. “한국적 영어학과 코퍼스의 활용”. 『영어학연구』 19, pp.1-19.
- 고광운. 2006. “영어 tough-구문에 대한 코퍼스 바탕 연구”. 『영어학연구』 22, pp.1-23.
- 고광운. 2007. “한국의 교과서 영어는 얼마나 영어다운가?”. 『영어학』 17(2), pp.191-210.
- 고광운, 이성운. 2008. “한국 영자신문 영어의 코퍼스 바탕 연구”. 『언어연구』 23(4), pp.601-619.
- 권인숙. 2002.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분석”.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권인숙. 2004. “한국 중학교 6차 및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분석”. 『외국어교육』 11, pp.211-251.
- 권혁승. 2000. “사전과 코퍼스: naked eye의 연관관계(collocation)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6(1), pp.161-180.
- 김동규, 김경호. 2005.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2), pp.33-68.
- 김용진. 1999.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1), pp.119-149.
- 김중복, 안지영. 2008. “English Tag Questions”. 『영어학 연구』 25, pp.103-126.
- 박승혁. 2005. “코퍼스 언어학과 문법 연구”. 『현대문법연구』 41, pp.1-21.
- 박진우, 박원준. 2005.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 신문생존 방안에 관한 연구”. 『동서언론』 9, pp. 437-455.
- 방정배, 최세경. 2003. “한국 언론의 사회적 갈등담론 생산구조에 관한 연구: 신문 텍스트의 이념, 지역 그리고 세대갈등 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3(2), pp.219-270.
- 서라미, 정재민. 2007. “한, 중, 일 3국 신문의 8.15 보도 비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37, pp.237-270.
- 송경화, 강범모. 2006. “신문기사의 언어 사용 양상: 코퍼스언어학적 접근”. 『인지과학』 17(4), pp.255-269.
- 이원표. 2005. “신문 사설에서의 직접인용: “Bakhtin의 대화성(dialogicality)” 관점에서의 분석”. 『담화와 인지』 12(2), pp.117-151.
- 이재경. 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언론과 사회』 14(4), pp.37-69.
- 정호정. 2003. “코퍼스 중심의 번역학 연구”. 『번역학연구』 4(2), pp.71-88.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an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Chalker, S and E. Weine. 1994.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Grammar*.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ystal, D. 2003.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5th ed). Oxford: Blackwell.
- Huddleston, R. and G. K. Pullum. 2002.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D. and G. Sampson (eds.). 2004. *Corpus Linguistics: Readings in a Widening Discipline*. New York: Continuum.
- McEnery, T., R. Xiao, and Y. Tono. 2006. *Corpus-based Language Studies: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New York: Longman.
- Scott, M. 2007. *Oxford WordSmith Tools 4.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고광운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20-749

E-mail: goh@yonsei.ac.kr

박성우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20-749

E-mail: baksungwoo@naver.com

접수일자: 2008. 08. 19

수정일자: 2008. 09. 21

게재일자: 2008. 09. 23

부 록

<부록 1> Frown 코퍼스 고빈도 동사 목록 (별표: 분석대상)¹⁵⁾

순위	동사	빈도	순위	동사	빈도
1	be	5598	26	own	147
2	have	2025	27	end	133
3	say	1147	28	become	129
4	do	501	29	write	128
5	make	387	30	*begin	126
6	get	344	31	look	126
7	go	333	32	*seem	125
8	work	312	33	leave	123
9	take	302	34	*help	121
10	like	274	35	*tell	120
11	state	244	36	cut	118
12	come	221	37	run	117
13	show	214	38	change	115
14	use	199	39	pay	115
15	think	198	40	point	112
16	know	194	41	put	111
17	*give	180	42	include	110
18	*call	175	43	talk	109
19	win	170	44	turn	107
20	play	167	45	lead	106
21	*want	167	46	open	106
22	*see	165	47	start	106
23	plan	154	48	*find	105
24	bill	153	49	*try	103
25	*need	148	50	*feel	96

15) <부록 1>의 목록에 주어진 12개 분석동사의 빈도는 본문의 각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빈도와 서로 상이한데, 그 이유는 주로 각 동사별 분석과정에서 동사의 본래 의미와 거리가 먼 구동사나 관용구(예: *give up*, *call off*) 등의 표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부록 2>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help, want, begin, find*1. *Help*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21(5.3)	9(9.1)
S-V-O	68(17.3)	26(26.3)
S-V-O-inf.	134(34.0)	24(24.2)
S-V-inf.	171(43.4)	40(40.4)
합 계	394(100.0)	99(100.0)

2. *Want*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O	83(20.5)	42(25.1)
S-V-O(<i>to</i> -inf.)	272(67.2)	103(61.7)
S-V-NP-O(<i>to</i> -inf.)	40(9.9)	15(9.0)
S-V-NP-O(- <i>ing</i>)	0(0.0)	2(1.2)
S-V-O-C	10(2.5)	5(3.0)
합 계	405(100.0)	167(100.0)

3. *Begin*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137(43.1)	46(40.7)
S-V-O	58(18.2)	16(14.2)
S-V-O(<i>to</i> -inf.)	59(18.6)	24(21.2)
S-V-O(- <i>ing</i>)	64(20.1)	27(23.9)
합 계	318(100.0)	113(100.0)

4. *Find*의 논항가 유형별 구문패턴

패턴 \ 코퍼스	KENC	Frown
S-V	3(0.8)	0(0.0)
S-V-O	247(66.0)	49(59.0)
S-V-O(<i>clause</i>) ¹⁶⁾	41(11.0)	13(15.7)
S-V-O-C	83(22.2)	21(25.3)
합 계	374(100.0)	83(100.0)

16) S-V-O(*clause*) 문형에서 목적으로 *wh*-절이 오는 경우가 KENC와 Frown 코퍼스에 각각 한 개씩 포함되어 있다.